



## 농림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표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안에는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1차적으로 닭고기 포장유통 시행에 들어갈 일일 작업량이 8만수 이상인 상위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포장유통 의무화를 위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92P 참조).

### 한·미 FTA 제3차 협상 개최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날 농업 분과 협상에서는 지난 8월 15일 교환한 농산물 양허안을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우리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킬 것은 지킨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측 양허안을 설명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고, 품목별 영향분석, 농업계와의 협의 추진 등 그동안의 양허안 작성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양허수준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부담이 작은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부터 논의하고 민감한 품목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대미 수입금액이 크고 국내생산이 적은 품목,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작은 가공농산물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록 국내생산이 작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며 시장교란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측 양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개별 품목의 관세 양허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4차 협상까지 양허안과 관련하여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며, SPS(위생 및 검역) 분과에서는 차기 협상에서 지난 2차 협상때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FTA News' 62P 참조).

### '5대 핵심 정책과제' 중점 추진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9월 21일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축산정책 중 '브랜드' '고품질' '위생 및 안전성' '분뇨' '방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앞으로 축산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브랜드의 내실을 위해 브랜드 규약을 마련, 규약에서 벗어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또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품질 고급화가 중요하며 품질고급화 정책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 축산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축산인들의 가장 골치거리인 분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연순환농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자원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가축방역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연구실간 자율적 경쟁원리 도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연구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사업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실과 연구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제도는 특허출원, 논문게재, 정책활용 등 11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연구실에는 논문게재 및 기술활용 분

야에서 많은 점수를 얻은 독성화학과의 독성평가연구실(정상희 박사)이 2년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으며, 최우수 연구원에는 소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송아지 설사병 바이러스의 검사기술에 관한 논문을 외국의 유명저널에 발표한 병리과 윤순식 연구관이 선정되었다.

우수연구원에게는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보고서의 표지모델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실에는 연구비 및 연구인력이 지원된다. 금년부터는 우수연구원 및 연구실원에게는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검역원은 우수연구실(원) 선발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연구원간의 상호경쟁을 통해 연구의 양과 질 양면에 획기적인 진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역원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보완하여 더욱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6년 3/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퍼시픽호텔(대연회실)에서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와 검역원 방역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3/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금번 예찰협의회는 전국 가축방역기관의 학술단체인 '한국가축위생학회'의 제29차 학술발표대회(9. 20~9.22)와 병행하여 개최되어 가축방역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분석하여 제공한 전국적인 질병 발생동향,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소부루세라병, 돼지소모성질환 등 현안 질병 방역대책의 주요 추진사항과 함께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 현장방역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 제공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날 강문일 원장은 “금년도 남은 기간 가축방역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철새 이동 시기에 대비하여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동물의약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언론에서 가축유래 항생제내성균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항생제 치료를 어렵게 하는 등 위해성 보도와 아울러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5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의약연구회 주최로 ‘동물용항생제내성과 안전사용관리’라는 주제 하에 추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항생제 내성과 국내외 내성 발생동향(서울대 김소현 박사), 동물 및 축산물 유래 항생제 내성(검역원 정석찬 과장),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Dr. Shryock, Elanco, 미국) 및 동물용 항생제의 안전사용관리 방안(검역원 손성완 과장) 등 4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교차내성균주의 생성과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위해 평가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물용 항생제의 내성감소를 위한 안전사용관리 방안으로서 ‘국가 항생제내성관리 시스템 구축’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사용량 감축’ ‘수의사처방제 도입’ ‘후기배합사료급여 의무화’ ‘잔류검사체계 강화’ ‘항생제 대체제 개발’ 등 여러 관리방안이 제시됐

으며 향후 동물의약연구회 및 전문가 협의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입안 될 것임을 시사했다.

### 강문일 원장, 소외된 무의탁 노인 위문



강문일 원장은 지난 9월 19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평강의 집(목사 이오림)’을 방문하여 무의탁 치매 노인과 지체장애자들을 위문했다.

강 원장은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치매 노인과 지체장애자들의 생활을 상세히 살펴보고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문일 원장은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 농협중앙회

#### 중소기업 추석자금 1조원 지원

농협중앙회는 상여금이나 원자재대금 부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금리우대, 근저당설정비면제 등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해 총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 실적에 따라 0.2%p에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며, 근저당설정비나 근저당해지 비용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2.0%p까지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만기연장을 하고, 담보대출금인 경우 해당 대출금이 본부나 지역본부의 승인대출 이었더라도 만기 연장시에는 영업점장 판단하에 기한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및 국내기업 여건의 악화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도 종업원들에게 상여금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와 같은 지원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금수급안정위원회

### 육용원종계 적정수수 유지토록 건의

양계 및 오리업계의 다양한 노력과 존치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금수급위원회가 내년도 축발기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급위의 시드머니 7백50억원은 회수되지만 발생된 수익금은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남성우)는 지난 9월 21일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 제2차 수급위를 개최하고 그 동안 수급위 존치를 위한 활동 사항 및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급위에서는 금년도 수급위 사업으로 실시된 화이트데이(白日) 닭고기 효(孝)잔치, 오리데이, 구구데이 등 소비홍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수급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시관련 보도로 인해 가금산물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올해도 시 발생 위험성이 높은 10월 이후에는 방역 등 농가교육 홍보는 물론 시관련 언론보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가격 하락 예상시 즉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최근 육용원종계 수입이 급증해 향후 육계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육계수급안정을 위해 육용원종계 수입이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종계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 〈건의문〉

육용원종계 적정수수 유지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정부 지도아래 업계 자율적으로 유지되어 온 9만4천수 원종계 수입쿼터제는 그간 육계 산업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6만2천수의 원종계가 수입된 것에 이어 하반기에도 6만5천수가 수입될 예정이어서 총 12만7천수가 수입될 전망이며, 원종계사업 신규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종계수급은 수요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에 원종계 수입 급증 후 육계 가격이 폭락한 경험이 있는 바 이를 방지하면 향후 육계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와 업계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일동은 육계산업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육계수급안정을 위해 원종계 수입이 적정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계산업 안정을 통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종계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 일동

## (사)축산물HACCP기준원(가칭)

### 창립총회 개최

가칭 (사)축산물HACCP기준원(발기인 대표 한형석) 창립총회가 9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앞으로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는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HACCP 인증 및 관리 등 HACCP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 제12회 아세아 태평양축산학회

### 학술대회 개최

제12회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 학술대회(The 12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대회장 백인기 AAAP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이 지난 9월 18일 22일까지 5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각 국의 축산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AAAP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27개국 1천2백여명의 참가자들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축산의 도전'이란 주제 하에 무려 1천2백65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 인간 중심의 친환경축산업 실현을 위한 답안지 작성에 나서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개막식에서 윤상기 축산연구소장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축산업은 가축분뇨처리와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및 소비자들의 안전축산물 요구 등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통해 전 세계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반추 대가축·돼지·가금 생산을 비롯 가축번식 및 유전, 식품가공, 가축 생명공학, 가축의 환경 및 복지, 사료기술, 식품안전 및 경제학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